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8, pp.37-82
<https://doi.org/10.29212/mh.2018..108.2>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핵무장국가의 군사전략과 전력기획

: 파키스탄 사례 분석과 북한에 대한 함의

김태현*

1. 머리말
2. 이론적 논의: 핵무장국의 전력기획
3. 파키스탄의 군사전략
4. 파키스탄의 군사력 건설
5. 결론: 평가와 함의

1. 머리말

핵무장을 결심하는 국가들은 핵무기가 안보의 공백을 정치적, 군사적으로 보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자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국가경영을 위해서 핵무기로 안보능력을 증가시키고 군비경쟁에

*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안보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센터장)

소모되는 자원을 경제와 복지예산으로 전환시켜 경제적 번영과 군사적 능력 강화를 동시에 겨냥하는 것이다. 이처럼, 핵무장국들은 재래식 전력 건설에서 부담을 줄이면서도 핵개발 이전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안보능력을 누리게 되는 ‘핵 대체(nuclear substitution)’ 효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¹⁾ 이스라엘, 파키스탄, 북한과 같이 핵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 핵무장국가(regional nuclear armed states)’는 핵무기를 통해 안보능력을 강화하려는 욕구가 더욱 클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북한은 핵무장을 추진하던 2013년 ‘경제력 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천명하고 이 전략노선의 근본적인 목적이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라고 주장하였다.²⁾

이론적으로는 핵무기의 수직적 확산을 통해 안보능력을 강화시키고 재래식 열세를 상쇄할 수 있으며 재래식 건설의 감축까지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식될 수 있으나, 실제에서는 핵대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미소 냉전기에는 양 진영간 안정적인 상호핵억제가 달성된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 재래식 전력으로 세계의 수많은 분쟁에 개입하였다는 점이 그것을 반증한다.³⁾ 나아가, 1999년 5월-7월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 그림자 하에서 카르길 전쟁을 수행하였는데 파키스탄과 인도의 핵무기는 모두 상호간의 확전위협을 억제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다.⁴⁾ 미국은 최첨단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장도

1) Ahsan Butt, “Do Nuclear Weapons Affect the Guns-Butter Trade-off? Evidence on Nuclear Substitution from Pakistan and Beyond,” *Conflict, Security & Development* 15, No. 3(2015), pp.229-257.

2) “당 중앙위원회 6기 23차 전원회의,” 『노동신문』 (2013. 3. 31).

3) 냉전기 소련은 헝가리(1956), 체코(1968), 아프간(1979-89), 미국은 한국전쟁(1950-53), 베트남(1955-75), 레바논(1982), 그레나다(1983), 파나마(1989-90)에 재래식 전력을 이용하여 군사적으로 개입하여 왔다.

4) Rodney W. Jones, “Minimum Nuclear Deterrence Posture in South Asia,” in: http://www.dtra.mil/about/organization/south_asia.pdf

분쟁과 테러공격 등에 대비하여 재래식 군비를 지속적으로 증강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핵무기만으로는 모든 스펙트럼의 분쟁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래식 전력이 여전히 전쟁수행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에서 제기하는 질문은 크게 세 가지이다. 핵 무장국들에게서 기대와 달리 핵 대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핵대체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조건하에 핵 무장국들은 어떻게 재래식 전력을 건설하고 있는 것일까? 핵 무장국이 군사력 건설에 있어서 당면하는 문제점과 딜레마는 무엇일까?

본 논문에서는 싸우는 방식을 먼저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전력을 산출하는 ‘전략기반의 전력기획 절차’를 적용하여 핵무장국가의 군사전략과 전력기획 방식을 파키스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파키스탄의 핵무장을 전후로 하여 재래식 전력의 증감추세를 분석하고 그 요인을 규명하며, 파키스탄이 최대 안보위협으로 인식하는 핵무장국 인도를 대상으로 어떻게 재래식 전력을 건설하는지에 주안을 두고 사례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두 가지 주장이 검증될 것이다. 첫째, 파키스탄은 핵무장 이후에도 재래식 전력 건설을 감축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핵무기의 안보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핵대체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파키스탄은 ‘핵-재래식 전략의 상호작용’ 관점에서 재래식 전략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상군 중심의 재래식 전력이 군사전략을 구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결과적으로 전략기반의 전력건설절차가 파키스탄의 전력건설 추세를 분석하는 방법론으로서 유용하다는 점을 확인할 것이며, 재래식 전력이 핵무장상황에서도 여전히 군사적 유용성을 가진다는 점을 주장한다.

핵무장 국가들의 재래식 군사력 건설과 관련한 연구는 많지 않다. 제 2차 핵시대에 등장한 지역 핵무장국들은 안보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제한된 국가자원을 고려하여 핵능력과 재래식 능력을 최적화하기 위해

노력해온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상할 정도로 관련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자원이 제한되는 국가일수록 핵무기의 안보능력 확대를 기대하면서 재래식 전력에 소모되는 과도한 비용을 줄이려고 시도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여기서, 본 연구는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핵무장국들이 핵무장 이후에도 재래식 전력을 급격하게 감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역설적인 현상을 규명하는데 학술적인 의미가 있다. 한편, 핵무장국들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래식 전력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실제 파키스탄에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규명함으로써 유사한 상황에 있는 북한의 향후 군사력 건설 방향과 딜레마를 전망하는데 있어 본 연구가 가지는 정책적 함의도 적지 않을 것이다.

논문의 구성으로서 2장에서는 사례연구를 위한 분석의 틀로서 핵무장국의 전략기획 절차인 ‘전략기반의 전력기획절차’를 소개하고,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이 분석의 틀에서 제시된 변수를 중심으로 파키스탄의 군사전략과 전력건설 추이를 분석한다. 5장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한 결론과 함의를 간략히 제시한다.

2. 이론적 논의: 핵무장국의 전력기획

가. 전력기획의 개념과 방법론

전력기획(force planning)은 국가의 안보요구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군사소요를 결정하고 재정적 여건 범위 내에서 이들 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군사력을 선정하는 과정이다.⁵⁾ 전력기획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5) Richmond M. Lolyd and Dino A Lorenzini, “A Framework for Chosing Forces,” Richmond M. Lloyd, *Foundation of Force Planning: Concept and Issues* (Newport. R. I: Naval War College Press, 1991), p.60.

제한된 국가재원을 고려하여 당면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최적의 군사력을 건설하는 것이라 하겠다. 국가 안보요구에 부합한 군사력 건설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이 항상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최적의 군사력’을 건설하는 것은 난제이다. 복잡하고 광범위한 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점, 그리고 예산의 제한 때문에 모든 국가들은 군사전략과 전력기획과정에서 비용효과적인 결심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제한된 재원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목표와 수단’ 간의 위협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력기획은 어떠한 목표와 방책들이 우선순위를 가지는지 결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적의 군사력을 건설하는 과정’으로 이해되는 전력기획은 여러 가지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이익과 목표로부터 출발하여 세부적인 군사전략 목표와 개념을 거쳐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군사력을 건설하는 하향식 접근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특정한 적 위협에 대비하여 아 전력의 취약성을 보완하는데 주안을 두는 위협기반 기획(threats and vulnerabilities), 불특정한 적 위협에 대비하여 아 전력의 준비에 주안을 두는 능력기반기획(capability-based),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군의 임무를 중심으로 전력을 건설하는 임무기반기획(mission-based) 등이 적용되기도 한다.⁶⁾ 이러한 방법론들은 변화하는 위협의 성격, 미래전에 대한 전망과 예측, 전력개발과 배치의 실현가능성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특정 하나의 방식이 적용되기도 하고 수준에 따라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이 결합된 방식으로 전력기획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전략기반의 하향식 접근법’은 전력기획의 가장 논리적, 이상적인 형태이다. 바틀렛(H. Bartlett)에 따르면 군사력 건설은 국가이익에서 출발하여 국가안보전략, 안보목표 및 전략에 이르는 하향식 접근방법에 기반을 두고 위협, 국가목표, 국가전략, 군사전략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6) Henry C. Bartlett and G. Paul Holman, Jr., “Strategy as A Guide to Force Planning,” *Naval War College Review* (Autumn 1988), p.15.

한다고 주장한다.⁷⁾ 이것은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소요되는 전쟁수행 도구를 건설하는 방식을 말한다. 싸우는 방식을 먼저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전력을 구비하는 ‘전략기반’의 군사력 건설 방식은 구체적인 전쟁수행 및 전투수행 시나리오에 입각하여 이루어 질 수도 있다. 즉, 필요한 전력을 산출하기 위해서 세계적, 지역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사태와 상황을 식별하고 이러한 위협에 대한 경고 및 동원시간, 방어와 공격계획의 관점에서 시나리오가 구상될 수 있다. 시나리오 접근법은 특정적인 상황, 시계열상 순차적 사건을 분석해나가는데 유용하나 지나치게 반응적 속성이 강하며 설정한 가정이 무너질 경우 전력건설의 융통성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표준 시나리오’ 이외에 ‘비표준 시나리오’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도 제시되고 있다.⁸⁾

핵무장국의 전력기획에서 주목할 점은 군사력 건설이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의 상호작용’ 관점에서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안보환경의 불확실성’과 ‘예산제한’을 고려해야 한다.⁹⁾ 우선 국가 안보가 당면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위협을 식별해야 하며, 이러한 위협요소에 대처하기 위해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의 관계를 검토하고 가장 효과적인 ‘전력조합’을 식별해야 한다. 그러나 당면한 위협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예산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인 대안을 수립할 수 없으므로 ‘자원제한’의 변수를 감안해야 한다. 만약 핵전략 및 핵능력과 재래식 능력의 적절한 조합을 찾는데 실패한다면 기능적으로 중복된 군사력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로써 의도하던

7) Henry C. Bartlett, “Strategy as A Guide to Force Planning,” p.15.

8) Richard L. Kugler, “Nonstandard Contingencies for Defense Planning,” in: Paul and David, *New Challenge for Defence Planning: Rethinking How Much is Enough* (Santa Monica: RAND, 1994), p.165.

9) Christopher Bolkcom, Shriley A. Kan, and Amy F. Woolf, *US Conventional Forces and Nuclear Deterrence: A China Case Study* (Washington D. 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06), p.5.

군사전략의 구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론과 달리 핵-재래식 전력의 최적화된 조합을 찾기는 쉽지 않다. 미국 의회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의 전력건설은 ‘재래식 전력 및 핵전력의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도 실제로는 2005년에 가서야 QDR을 통해 처음으로 이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군사전략 및 군사력 구조에 관한 작업을 착수하였다고 밝혔다.¹⁰⁾ 핵전력과 재래식전력과의 상호관계성 속에서 재래식 전력 건설을 한다는 것은 당면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핵무기의 역할과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무기는 단일무기체계로서 억제, 강압, 격퇴, 격멸과 같은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절대무기’이자 전략 그 자체이다.¹¹⁾ 핵무기는 전쟁수행 전반에 포괄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량 살상력을 가지고 있어 핵능력에 따라 저강도 분쟁으로부터 고강도 분쟁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 이러한 배경에서 핵무장국이 재래식 전력건설을 기획함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핵무기의 전쟁수행에서의 역할과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있다.

나. 핵무기의 유용성: ‘핵대체 효과’의 어려움

핵무장국들의 재래식 건설에서 주목되는 것은 과연 핵무기의 보유가 재래식 전력 건설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가에 있다. 소위 ‘핵 대체효과’에 관한 문제이다. 버트(A. Butt)는 “핵능력을 보유한 국가들이 재래식 전력 건설에서 부담은 줄어들지만 ‘핵개발’ 이전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안보능력을 누리게 되는 상황”을 ‘핵대체(nuclear substitution)’ 효과라고 정의하였다.¹²⁾ 버트와 같은 핵대체 회의론자들은 핵보유가 재래

10) Christopher Bolkcom, *US Conventional Forces and Nuclear Deterrence*, p.1.

11) 김태현, “북한의 공세적 군사전략: 지속과 변화,” 『국방정책연구』 제33권 제1호 (2017년 봄), pp.158-159.

12) Ahsan Butt, “Do Nuclear Weapons Affect the Guns-Butter Trade-off?”, pp.229-257.

식 준비감축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핵무기가 모든 스펙트럼의 분쟁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재래식 전력의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실제 파키스탄과 인도의 사례에서 이 문제는 여실히 드러났다. 1999년 5월-7월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그림자 하에서 카르길 전쟁을 수행하였는데, 전쟁 수행과정에서 인도의 핵무기는 파키스탄군이 카쉬미르의 통제선(LOC)을 통과하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의 핵무기도 미국의 중재와 파키스탄의 철수로 위기가 완화될 때까지 인도의 확전 위협을 억제하지 못하였다.¹³⁾ 뿐만 아니라 핵무기는 2001-2002년 인도군의 분쟁지역의 증강과 파키스탄에 대한 벼랑 끝 전술을 억제하는데도 실패했다.¹⁴⁾

이와 같이 기존 핵무장국들의 재래식 건설추세를 종합할 때 핵대체 효과의 실현 여부는 ‘전략목표’와 ‘핵능력’의 두 가지 변수 조합으로 설명된다. 버트가 제시한 모델에 따르면 핵무장국가가 추구하는 전략목표가 현상유지 혹은 현상변경인지, 핵능력의 주요 안보위협 억제범위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핵대체 효과의 발휘여부가 결정된다.

〈표 1〉 핵대체 효과의 작동 논리¹⁵⁾

		전략목표	
		현상유지	현상변경
핵능력: 핵무기만으로 주요 안보위협 억제가 가능한가?	긍정	① 핵대체 효과 가능	② 핵대체 효과 미발생 * 핵무기를 공세를 위한 '방패'로 사용
	부정	③ 핵대체 효과 미발생 * 억제방어 위해 재래식 전력 필요	④ 핵대체 효과 미발생

첫째, 전략목표가 현상변경을 지향한다면 핵능력에 상관없이 핵대체

13) Rodney W. Jonse, "Strategic Stability and Conventional Force Imbalance: Case of South Asia," *SASSU Research Paper No. 1* (2005).

14) Lt Gen. V. K. Sood and Pravin Sawhney, "Operation Parakram: The War Unfinished," *Sage* (2003).

15) Butt, "Do Nuclear Weapons affect the Guns-Butter Trade-off?", p.245.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②, ④). 예를 들면, 파키스탄은 카시미르에 대한 ‘현상파기’와 같은 수정주의 군사전략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재래식 전력 건설에 막대한 재원을 투사하고 있다. 인도와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외에도 연방직할 부족지역의 대테러 작전과 발루치스탄(balochistan)의 반란, 아프간과 이란과의 불확실한 관계 때문에 재래식 전력이 요구된다. 냉전기 소련도 미소 간 상호확증파괴가 작동되고 있었음에도 재래식 전력을 감축하기보다 오히려 핵전쟁하 재래식 전쟁수행 전략을 발전시킨 적이 있다. 소련의 공세적 전력은 수정주의적 야심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것은 ‘해방전쟁’을 지원한다는 이념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전략목표가 현상유지에 국한된다 하더라도 핵능력만으로 주요 안보위협을 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핵대체 효과가 발휘되기 어렵다(③). 직면한 안보위협이 ‘순수한’ 핵억제로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핵대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핵전쟁 위협이 상대에 의해 ‘신뢰성 없는 (incredible)’ 것으로 인식된다면 핵대체 효과는 발휘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인도는 1974년 핵실험 이후 핵의 전략적 효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핵무기가 재래식 전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목하지 않았다.¹⁶⁾ 오히려 인도는 핵무장 이후 1980년대에 군사현대화를 착수하여, 9개 사단에서 25개 사단으로 증강하고, 전차연대를 27에서 58개로 두 배나 증강시켰으며, 공군과 해군전력도 1970년대 괄목할 만한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었다.¹⁷⁾ 이스라엘도 지정학적 환경으로 인해 공세적 군사전략을 발전시켜 왔다. 이스라엘은 국토가 좁아 적의 침략시 공간을 내주면서 시간을 벌 수 없었으며, 인구가 적어 전쟁을 신속하게 종결해야 했다. 또한 저항도 분쟁과 전면전이라는 성격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의 위협을 억제해야 하는 상황에 당면해 있기 때문에 공세적인 전략을 구상할 수밖에 없다. 제한전, 테러리스트의 공격, 게릴

16) George Perkovich, *India's Nuclear Bomb: The Impact on Global Prolifer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17) Amit Gupta, "Determining India's Force Structure and Military Doctrine," *Asian Survey* 35(5)(1995), pp.446-447.

라 작전과 같은 저강도 분쟁은 핵위협의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핵무기로 억제되기 어렵다.¹⁸⁾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두 가지이다. 우선, 핵무장국가의 전략목표가 현상유지에 국한되고 핵능력으로 주요 안보위협이 모두 억제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핵대체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①), 그 이외에는 핵대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한 가지는 전략목표가 현상유지에 머물고 있으면서 핵무기만으로 주요 안보위협을 모두 억제할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영국과 미국, 중국, 프랑스의 경우 핵무장 이후 재래식 전력에서 변화를 보여 왔으나 이마저도 지속적이거나 포괄적이지 않았다. 그만큼 핵 무장국이 핵대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핵과 재래식 전력의 상호관계

핵무장국의 전력기획은 핵과 재래식 전력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핵 불사용’이 되었건 ‘핵사용’이 되었건 억제, 강압, 격퇴, 공격 등의 군사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전략의 성패는 상대에게 핵전쟁 위협을 ‘신뢰성’있게 인식시키는가에 달려 있다.¹⁹⁾ 신뢰성이란 상대가 아츠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행동을 할 경우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믿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핵무기는 다양한 분쟁양상(재래식, 핵전쟁), 다양한 상황(평시, 전시), 다양한 수준의 위기(저강도, 고강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신뢰성을 가져야 하지만 그러한 전 방위적인 신뢰성을 가지기는 어렵다. 핵능력과 핵사용 의지가 확고하다 하더라도 신뢰성 범주에서 벗어나는 분쟁양상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 핵능력이 다종화되

18) Efraim Inbar and Shmuel Sandler, “Israel’s Deterrence Strategy Revisited,” *Security Studies* 3(2) (1993), pp. 334–336.; Shai Feldman, *Israeli Nuclear Deterrence: A Strategy for the 1980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2), p.107.

19) Stephen J.Cimbala, “On Nuclear War: Deterrence, Escalation, and Control,” in: *Military and Strategic Affairs*, Volume4, No.3.(2012), p.25.

더라도 저장도 분쟁에서 여전히 ‘과잉 파괴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로 억제하지 못하는 회색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핵무장국이 특정한 위기 수준에 도달했을 때 핵사용을 결심한다고 믿을 만한 핵문턱(nuclear threshold)은 핵 이외의 충분한 위기관리 수단의 존재와 위협의 절박성과 같은 객관적 핵문턱, 그리고 평판과 불확실성과 같은 주관적 핵문턱의 조합에 따라 그 수준이 정해지기 마련인데 핵무장국은 되도록 핵문턱을 낮추어 저장도 위기단계에서도 핵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할 것이다.²⁰⁾ 그러나 현실적으로 핵무장국이 비핵무장국의 군사개입을 억제하지 못한 사례는 적지 않게 식별된다. 1950년 미국은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을 핵으로 억제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중공군의 공세로 인해 전세가 뒤집히는 동안에도 핵무기는 사용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미국은 ‘중이호랑이’라는 조롱을 받아야 했다. 1956년 핵무장한 영국이 이집트의 수에즈운하 국유화를 막으려했지만 실패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재래식 전력으로 시나이를 점령한 이후에야 사태가 종결되었다. 1982년 아르헨티나는 핵무장국인 영국령 포클랜드를 침공하기도 하였다. 1991년 이라크는 스커드 미사일로 핵무장국인 이스라엘을 타격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쉐서(T. Sechser)는 1995년간 발생했던 348건의 분쟁연구에서 핵무장국이 재래식 무장국가를 상대로 분쟁 시 강압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예상 밖의 결과를 도출하였다.²¹⁾ 핵무기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상대 국가를 강압하는 능력이 구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²²⁾

핵 위협의 신뢰성 범주에 미치지 못하는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 위협에 비례하여 대응할 수 있는 ‘비핵수단’과의 균형 잡힌 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안보위협에 상응하는 재래식 전력에 막대한 자원이

20) 김태현, “북한의 핵전략,” 『국가전략』 제22권3호(성남: 세종연구소,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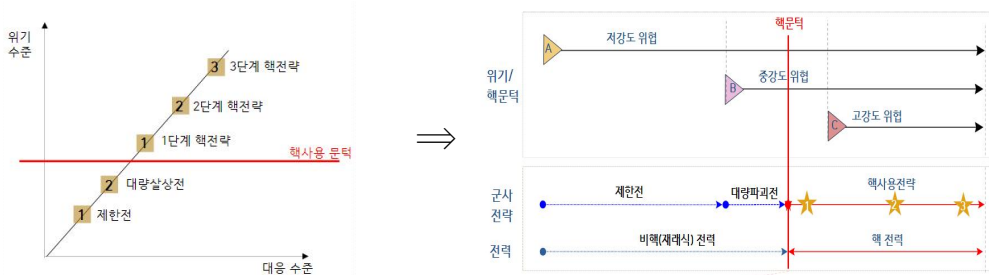
21) Todd S. Sechser and Matthew Fuhmann, *Nuclear Weapons and Coercive Diplom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22) David P. Barash, “Nuclear Deterrence is a Myth,” in

: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jan/14/nuclear-deterrence-myth-lethal-david-barash>

소요될 경우 국가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핵문턱을 낮추기 위해 핵의 기술적 고도화에 보다 주안을 둘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핵고도화가 국제사회의 비확산 레짐과 충돌하여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면 핵고도화에 집중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또한, 이것이 인접국의 핵확산을 자극할 것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 핵과 재래식 전력의 조합이 이루어져야 최적의 안보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림 1〉 위기단계별 핵전략과 재래식 전략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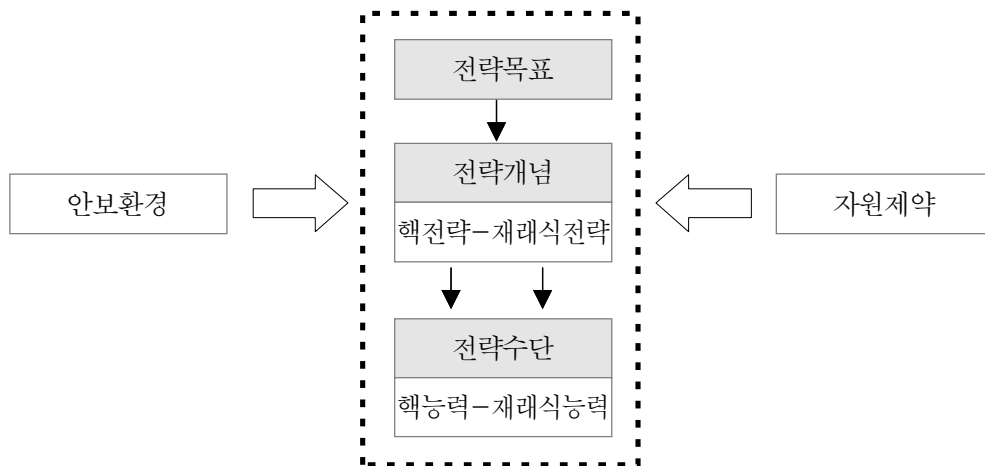
위 그림에서 보듯이 안보위협은 크게 점진적 위기고조(저강도의 위기 → 고강도 위기)와 급작스런 고강도 위기(저강도 위기를 거치지 않고 급작스런 고강도 위기가 발생)의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경우든지 핵무장국의 핵문턱은 특정 수준에서 신뢰성 있게 정해질 것이므로 핵사용의 문턱 이전에 발생하는 분쟁상황에서는 비핵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핵능력이 미약한 국가들의 경우 핵능력의 열세로 인해 신뢰성 있는 핵사용 문턱은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그 이전 단계의 분쟁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핵수단을 통한 저강도 대응능력이 필요하다. 핵무장국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재래식 제한전 → 대량살상전’과 같이 재래식 전략으로 저강도 위기관리를 하고, 핵으로는 억제와 강압 등의 핵전략으로 위협고조 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다. 핵문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다양한 유형의 위기관리에 있어서 저·중강도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비핵수단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라. 분석의 틀: 핵무장국의 재래식 전력기획

전략기반의 하향식 접근방법에 따른 외부 위협에 대비한 핵무장국의 재래식 전력기획은 크게 3단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림 2〉 분석의 틀: 핵무장국의 전력기획 절차



첫째, 1단계에서는 전략 환경 평가로서 ‘안보환경’과 ‘자원제약’이 군사 전략에 미치는 영향요소를 평가한다. 한 국가의 군사전략은 안보환경과 자원제약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당면한 안보환경과 자원제약 상황을 감안하여 전략목표가 설정되며 이러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선택한다. 따라서 만약 안보환경과 자원제약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화한다면 군사전략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첫 번째 변수인 ‘안보환경’은 군사적 목표 설정, 군사자원의 결정 및 군사전략 개념설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²³⁾ 안보환경은 지정학적 관계와 동맹관계의 변화와 같은

23) Henry C. Bartlett, G. Paul Holman, Timothy E. Somes, “The art of strategy and force planning,” Richmond M. Lloyd, *Strategy and Force Planning* (New Port: Naval War College, 2004), p.17.

국제적 변수, 그리고 정권의 정당성, 국민들의 의식변화, 정권안보의 취약성과 같은 국내변수의 요소를 포함한다. 안보환경의 변화는 군사적 수단의 상대적 유용성을 변화시키기도 하며 새로운 능력의 필요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한편, 두 번째 변수인 ‘자원제약’은 군사전략의 실현가능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선정된 군사전략개념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핵심 수단은 외교, 정보, 군사, 경제(DIME) 등 4대 국력요소이다.²⁴⁾ 목표달성을 위해 소요되는 자원은 목표와 비교해서 항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은 자신의 목표 달성에 미달되는 자원을 가지고 군사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더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가 내부의 타 부처 및 비국가행위자들과 더 많은 자원 확보를 위해 경쟁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원할당은 전략실행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군사전략 수립 과정에서 어떠한 정책들이 우선순위를 가지는지 결정되어야 한다.

둘째, 2단계는 군사전략 수립단계로서 이 단계에서는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핵전략과 재래식 전략의 상호작용’ 관점에서 군사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한 국가의 군사전략 목표는 다양한 지향성을 가지게 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현상변경’과 ‘현상유지’의 두 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전략목표가 현상유지라고 해서 군사전략 개념이 반드시 수세적일 필요는 없다. ‘공세적’ 군사 조치를 통해서 현상유지를 달성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여기서 관건은 ‘핵-재래식 전략’ 관계 속에서 핵전략을 우선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재래식 전략의 스펙트럼을 규정하는데 있다.

셋째, 3단계는 군사력 건설 소요도출 단계로서 여기에서는 수립된 군사전략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핵능력과 재래식 전력의 조합비율을 정하게 된다. 핵전력의 역할과 재래식 전력의 역할이 최적화되고 나면 재래식

24) Joint Publication, *Joint Warfare of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 C.: DoD, 2000), p. v.; Jeff Farlin, *Instruments of National Power: How America earned Independence?* (US Army War College, 2014).

전력의 건설 방향이 결정된다. 기존 핵무장국가들이 어떤 형태의 핵전략을 지향하든지 간에 핵대체 효과가 재래식 전력 건설추세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전제를 한다면, 핵무장국의 재래식 전력 건설방향은 ‘재래식 전력의 유지 또는 증강’의 추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국가들은 핵전력이 담당하는 안보위협 스펙트럼을 재평가하여 ‘위협 담당 분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핵사용 신뢰성이 유지되는 ‘핵 문턱’이 규정될 것이다.²⁵⁾ 신뢰성 있는 핵문턱이 규정된 이후, 핵문턱 이전에 발생하는 모든 위협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래식 전략을 구상하고 거기에 맞는 비례성 있는 재래식 전력 건설이 ‘선택적’으로 감소, 유지, 증가될 것이다.

이와 같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전략기반의 군사력 건설은 ‘이상적’으로 설정된 것이다. 실제에는 전략기반의 전력기획보다는 ‘자원제한’을 고려하여 최적의 ‘전력조합’이 먼저 구상된 이후 이를 기반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말하자면 현실에서는 2단계와 3단계가 거의 병행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전력기획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의미이다.

3. 파키스탄의 군사전략

가. 전략 환경 평가: 안보환경과 자원제약

파키스탄의 주요위협은 인도이며, 인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전략은 ‘핵-재래식전략’ 간의 역할과 비중을 어떻게 최적화하여 조합하는가에 주안을 두고 있다. 안보위협과 자원제약의 변수를 중심으로 파키스탄의 전략 환경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파키스탄이 당면한 ‘안보위협’은 복잡적이다. 대외적으로, 파키

25) 김태현, “북한의 핵전략: 적극적 실존억제,” pp.14-15.

스탄은 안보위협 대상인 인도와 2,90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카슈미르 지역과 방글라데시에 대한 패권을 둘러싸고 역사적으로 분쟁을 거듭해왔다. 파키스탄은 인도에 비해 정치, 경제, 군사력에 있어서 상대적인 열세에 처해 있다. 특히, 군사력에 있어서 617,000의 병력규모를 가진 파키스탄은 130만 명의 상비군을 가진 인도보다 재래식전력에 있어 두 배정도 열세한 실정이다.²⁶⁾ 예비전력에 있어서도 파키스탄은 110만을 가진 인도보다 2배 이상 열세한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파키스탄의 재래식 전력은 인도의 공격을 수주 또는 수개월 저지할 능력이 되는 반면, 인도군의 전력은 장기전에서 파키스탄의 방어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된다.²⁷⁾ 이 때문에 파키스탄 입장에서 인도의 재래식 전력은 우선적 안보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대내적으로 파키스탄은 연방직할 부족지역의 테러 위협, 발루치스탄 반란 위협, 그리고 인종 및 종교분쟁 등 다양한 체제 내적위협이 상존한다. 파키스탄은 내부적으로 분리운동이 정권을 오랫동안 위협해왔으며 이러한 도전요소는 군사전략 수립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1971년 동파키스탄(방글라데시)의 분리 독립은 파키스탄 군 입장에서 트라우마였기 때문에 ‘국가수호’는 군의 절대사명이 되고 있다. 파키스탄의 많은 장교들은 당시 상황을 “파키스탄 역사의 가장 슬픈 순간”으로 회고한다.²⁸⁾ 파키스탄을 약화시키기 위해 분리 독립운동에 대해 인도와 이란의 지원이 있다는 정황은 파키스탄을 둘러싼 위협이 내외적인 복합위협으로 특징지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파키스탄은 인종적, 정치적으로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회적으로

26) Francisco Aguilar(eds.), *An Introduction To Pakistan's Military* (Harvard Kennedy School: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p. 2011), pp.9-10.

27) Paul S. Kapur, “India and Pakistan’s Unstable Peace: Why Nuclear South Asia Is Not Like Cold War Europe,” *International Security*30, No. 2(Fall 2005), p.139.

28) Pervez Musharraf, *In the Line of Fire* (New York: Simon & Schuster, 2006), p.54.

항상 ‘상당한 수준’의 긴장이 내재되어 있다. 특히, 종교분쟁으로 인해 2011년 펀자브의 주지사와 내각 장관이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했다. 세속적인 정치지도자와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대중 간에도 종교 분열은 심화되고 있다. 여기서 군은 파키스탄의 ‘국가수호자’로서 상대적으로 세속적인 역할에 무게를 두면서도 군의 구성원인 ‘장병’들이 이슬람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긴장상태에서의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09년 10월 라왈핀디의 육군사령부에 대한 테러 공격이 발생하였으며, 2011년 5월에는 카라치의 해군기지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기도 했다.

둘째, ‘자원제약’ 변수는 파키스탄의 군사력 건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파키스탄의 경제력 약화는 인도와의 장기적인 군비경쟁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인도의 경제력은 파키스탄보다 거의 8배 강력하며, 지난 20년 동안 신속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1995년 이후 매년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9%였으나 파키스탄은 6%에 머물렀다. 인도는 GDP의 2.5%를 국방비에 투자하고 파키스탄은 GDP의 3-4%를 국방비에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²⁹⁾ 1991년-2015년 간 인도의 국방비는 파키스탄에 비해 5배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인도와의 국방비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파키스탄의 1인당 국방비 지출도 인도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 1975년 파키스탄: 인도의 1인당 국방비지출 비율은 2.4:1이었던데 반해, 2015년에 와서는 1.1:1로 격차가 줄어들었다. 지난 5년간 인도는 핵무기 투자비에 있어서도 2.5배-3.3배의 우위를 보이고 있다.³⁰⁾

종합하자면 파키스탄은 군사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재원능력의 제한 때문에 인도와의 군비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없으며 그 차이는 점점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파키스탄은 지상전에서는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 인도지상군의 침략을 저지할 충분한 전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

29) SIPRI,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2016,” <http://www.sipri.org/databases/milex>

30) Shane Mason, *Military Budgets in India and Pakistan: Trajectories, Priorities and Risks* (Washington D. C.: Stimson Center, 2016), p.36.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르길 분쟁 이후 파키스탄에 대해 인도가 ‘전격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파키스탄에게 큰 우려를 주고 있다. 더욱이 인도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대대적인 군사현대화, 그리고 장기전을 수행할 수 있는 인도의 전쟁지속능력은 커다란 위협이다.³¹⁾ 이러한 인도-파키스탄 간의 재래식 전력의 불균형은 수십 년 지속되어 왔으며 그 격차는 인도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키스탄이 직면하고 있는 복잡한 전략 환경 속에는 이미 파키스탄 군사전략과 군사력 건설이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와 딜레마가 함께 내재되어 있다. 인도와의 재래식 군비경쟁에서의 열세는 파키스탄이 핵무기에 더욱더 의존적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파키스탄은 핵무기로서 인도의 주요공격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재래식 전력에서의 열세를 상쇄하려고 한다. 무엇보다 가장 큰 딜레마는 파키스탄이 핵보유국이 된 이후에도 재래식 전력 증강을 강화해야만 하는 불가피성에 있다.³²⁾ 파키스탄이 핵무장 한 이후에도 재래식 전력 증강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강력한 지상군을 통해 영토를 확보하겠다는 ‘수정주의적’ 군사전략뿐만 아니라 체제 내부 위협을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에 기인한다.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싼 뿌리 깊은 분쟁가능성과 체제내부의 테러가능성과 혼란 때문에 재래식 전력의 일방적인 감축과 양보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인도의 전격전식 ‘제한 전쟁’ 위협은 양국 간 국지전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도와의 재래식 군비의 불균형은 제한전쟁에서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촉매제로 작용될 수 있으며, 핵전쟁 위협으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불균형이 심화될수록 파키스탄은 전술핵무기를 배치하여 핵문턱을 낮추려는 욕구와 시도를 증가시킬 것이고, 이것은 또다시 재래식 분쟁가능성과 핵전쟁 위기의 복잡성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

31) Jones, “Strategic Stability and Conventional Force Imbalance: Case of South Asia,” p.3.

32) Butt, “Do Nuclear Weapons affect the Guns-Butter Trade-off?,” p.234.

나. 파키스탄의 전략문제: 핵그림자하 재래식 전쟁 수행

파키스탄의 우선적인 안보전략 목표는 대내적으로는 다양한 민족구성원들을 통합시키는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인도와 대치상황과 위협을 대응하는데 있다.³³⁾ 군사전략 수준으로 보자면 전자는 반란전과 테러전에 대한 대응에 주안이 있으며, 후자는 인도와의 전면전 또는 저강도 분쟁에서의 대응에 중점이 있다. 이중에서 평시에는 인도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에는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우선적인 군사전략목표가 되고 있다.

파키스탄의 군사전략은 인도의 위협을 대응함에 있어 ‘핵-재래식 전략의 조합과 역할분담’이라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1999년 5월-7월 두 달간 수행된 카르길 전쟁은 파키스탄에게 적지 않은 교훈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카르길 전쟁 이후 ‘핵무장 상황하 재래식 전쟁수행’은 파키스탄군의 핵심적인 전략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 1999년 파키스탄의 카르길 전쟁 수행은 ‘기정사실화(fait accompli)’ 전략의 전형적인 형태였다. 기정사실화 전략의 목적은 상대국이 동원, 전력 배치할 시간을 주지 않고 신속하게 공격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전략적 기습을 통해 영토의 일부점령과 같이 제한된 목표를 신속하게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³⁴⁾ 카르길 전쟁에서 파키스탄은 무자헤딘(Mujahideen)을 비롯한 무장 세력을 가장한 침투세력을 수단으로 하여 일정한 군사적 성공을 기정사실화하고, 이후에 국제적 개입을 유도하여 국경선의 재협상을 유도하여 인도군의 철수를 강요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³⁵⁾ 파키스탄이 기

33) Alex Calvo, “Pakistan’s Military Modernization: An Overview,” *The Eurasian Studies society of Great Britain and Europe Journal: An Open Access Working Paper*, Vol. 5. No. 1. March 2016, p.2.

34) Michael S. Gerson, “Conventional Deterrence in the Second Nuclear Age,” *Parameters* (Autumn 2009), p.39.

35) 손한별, “핵보유국에 대한 전략적 강압: 1999년 카르길 전쟁,” 『국가전략』 제23권 4호(2017), p.41.

정사실화를 통해 카슈미르 지역의 불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은 두 가지 가정에 기반을 두었다. 하나는 1998년 핵무장한 이후 파키스탄은 “인도가 핵확전의 우려 때문에 군사적 반격을 절제할 것이며, 일정 부분 영토를 양보하더라도 협상에 응할 것이다”라는 가정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남아시아의 핵확전을 우려하는 미국이 즉시 위기해결을 위해 개입할 것이며 ‘카슈미르의 새로운 현상유지(new status quo)’를 기정사실화해 줄 것이다”라는 가정이었다.³⁶⁾ 이러한 국제화 전략이 성공을 했더라면 파키스탄군은 “군사전략의 천재”로 입증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다.

카르길 전쟁 이후 파키스탄의 ‘핵그림자하의 재래식 전쟁수행’ 전략은 보다 현실적으로 수정되었다. 카르길이 남긴 가장 명확한 교훈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국경선 너머의 인도군의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는 ‘백지수표’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핵무장이 도발의 문턱을 높이고, 그로써 파키스탄이 인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에 집중하기 위해 저강도 수준의 분쟁에서 ‘많은 행동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핵의 유용성은 입증되었다. 그러나 파키스탄으로서도 자신이 넘어서는 안 되는 핵문턱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1999년 인도의 축출작전에 대해 파키스탄이 핵 대응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은 바로 이러한 ‘핵문턱’을 분명히 인식했기 때문이다.³⁷⁾

나아가, 카르길 전쟁 이후 인도의 ‘핵무장하 제한전쟁 교리’의 발전은 파키스탄의 군사전략변화를 촉진한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인도에서 제한전쟁 논의는 2004년 4월 ‘콜드 스타트(CSD, Cold Start Doctrine)’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공군 및 해군전력과 함께 편조된 8개의 통합전투단(기계화 및 기동타격부대)이 파키스탄의 테러근거지로 추정되는 표적에 대하여 강력한 타격을 가하기 위해 침투대형을 유지’하

36) Manpreet Sethi, “Conventional War in the Presence of Nuclear Weapons,” *Strategic Analysis*, Vol. 33, No. 3 (2009), p.417.

37) Manpreet Sethi, “Conventional War in the Presence of Nuclear Weapons,” p.418.

여 파키스탄이 핵문턱을 넘는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즉시 타격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⁸⁾ 인도의 콜드 스타트가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존재하는지 혹은 단순한 인도정부의 ‘허풍’인지는 논란이 많았다.³⁹⁾ 오히려 이때 공식 채택한 교리는 ‘능동적 독트린(Pro-active Doctrine)’이라는 개념이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인도의 전략이 군사적 사고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단순한 정치적 ‘상징성’에 연원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으며,⁴⁰⁾ 인도의 군사독트린이 파키스탄의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유연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⁴¹⁾ 분명한 것은 인도의 콜드 스타트가 파키스탄의 테러조직이 인도영토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였던 2001년 인도 의회에 대한 자살공격이후 본격화되었으며, 이 당시 인도가 통제선(LOC) 인근으로 군사적 동원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동원시간이 과다 소요됨에 따라 실패했던 교훈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교훈에 기초하여 인도군은 방어일변도에서 ‘콜드 스타트’라는 공세교리로 전환하여 핵우산하에 수행하는 제한전을 위한 공간을 찾는데 목표를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제한전쟁 교리의 발전은 파키스탄으로 하여금 새로운 군사전략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파키스탄의 군사전략은 핵무장 상황, 전쟁수행 경험에 기초한 새로운 형태의 ‘핵그림자하 재래식 전쟁수행 전략’을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인도와의 상호 핵억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 전략의 핵심은 “유용성으로 충분한 정도로 크지만, 핵 보복의 위험문턱에 도달하지 않을 정도로 작은 규모의 공격”을 구상하는데 있었다.⁴²⁾

38) Subhash Kapila, “India’s New Cold Start War Doctrine strategically reviewed,” *Delhi: South Asia Analysis Group, Paper No. 99104* (May 5, 2004).; Shaukat Qadir, “Cold Start: The Nuclear Side,” *Lahore: The Daily Times* (May 17, 2004).

39) Francisco Aguilar(eds.), *An Introduction To Pakistan’s Military*, p.11.

40) George Perkovich, *India’s Nuclear Bomb: The Impact on Global Prolifer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p.231.

41) Walter Ladwig III, “A Cold Start for Hot Wars? The Indian Army’s New Limited War Doctrine,” *International Security* 32(3)(2007), pp.159–165.

42) Sethi, “Conventional War in the Presence of Nuclear Weapons,” p.415.

핵 확산의 위험성은 크지 않으면서도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군사력 운용 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핵무장국간의 재래식 전쟁수행에 있어 커다란 전략적 딜레마이다. 여기서 파키스탄이 군사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주목해야 했던 변수는 국가차원의 ‘자원 제약’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파키스탄의 군사전략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술핵무기로 핵 문턱을 낮추면서도 핵 문턱 이전에 발생하는 위기에 대해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재래식 전력으로 대응하는데 있어 최적의 조합을 식별하는데 주안을 둘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파키스탄은 ‘전 방위 억제(FSD, Full-Spectrum Deterrence)’의 핵전략과 ‘신 전투수행개념(NCWF, New Concept of War Fighting)’의 재래식 전략 개념을 발전시켜 인도의 콜드 스타트 전략에 대응하고 있다. 이것은 강력한 재래식 전력을 가진 인도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핵사용의 문턱을 최대한 낮추고 지상군, 해군, 공군력의 합동성을 토대로 신속한 동원과 대응을 골자로 하는 제한전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파키스탄은 전술핵무기로 핵문턱을 낮추어 저장도 위기에 서도 핵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위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재래식 전격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신 전투수행개념’이라는 재래식 제한전쟁 전략을 발전시켜 대응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다. 핵전략: ‘전 방위 억제(Full-Spectrum Deterrence, FSD)’

파키스탄은 2013년 이후 ‘전 방위 억제(FSD, full-spectrum deterrence)’ 개념을 채택하고 핵무기로서 ‘주요 재래식 전쟁’과 ‘핵 위협’을 억제하는데 방점을 두었다.⁴³⁾ 2017년 12월 6일 국가지휘국 자문위원인 키드와이 중장(K. Kidwai)에 따르면 전 방위억제란 “모든 인도의 표적들을 파키스탄의 사정권 하에 두는 것”이라고 설명하였

43) Beenish Altaf, “Pakistan’s Policy of Full Spectrum Deterrence,” in: <http://foreignpolicynews.org/2017/12/15/pakistans-policy-full-spectrum-deterrence>

다.⁴⁴⁾ 이것은 파키스탄이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수준에서 인도를 사정권 내에 두기 위해 인도의 미사일방어체계를 극복하면서 대가치표적(counter-value target), 대군사 표적(counter-force target), 전투수행(warfighting)을 포함하여 모든 범주의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주안을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키스탄은 자신들이 기존의 최소신뢰억제(MCD, minimum credible deterrence)에서 전 방위 억제로 전환하게 된 근본적인 요인이 인도의 공세적 전략변화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재래식 군비경쟁의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 전 방위 억제 전략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인식한다. 이들은 인도가 콜드 스타트 교리를 채택한 이후 신속한 제한보복 및 침투전략을 계획하여 파키스탄 영토의 일부를 점령하는데 목적을 두어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도의 제한전쟁 계획과 계산속에는 핵그림자하에 재래식 전쟁이 발생할 경우 파키스탄은 자신의 영토를 양보하면서도 인도의 제한공격에 대해서는 결국 핵사용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⁴⁵⁾ 이에 반해 파키스탄은 자신의 핵능력이 전략적 수준의 효용성만 발휘할 뿐 전술적 수준에서는 핵 문턱 이전에 발생하는 제한전쟁을 인도에게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약성을 간과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파키스탄은 저 위력, 단거리, 전술 전투핵무기를 개발하고 단거리 미사일인 나스르(Nasr) 미사일을 이용하여 인도의 제한공격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유연억제방안(flexible deterrence options)’을 발전시켰다. 다시 말해, 파키스탄은 대량보복전략보다는 나스르 단거리

44) “Full spectrum deterrence : Discussion in ‘Strategic & Foreign Affairs’ started by ashok321, Dec 15, 2017.” <https://defence.pk/pdf/threads/full-spectrum-deterrence.533525/>

45) “What is Pakistan’s Full Spectrum Deterrence doctrine? Discussion in ‘Pakistan Strategic Forces’ started by Pksecurity, Sep 10, 2015,” <https://defence.pk/pdf/threads/what-is-pakistans-full-spectrum-deterrence-doctrine.396951/>

미사일을 이용하여 인도의 콜드 스타트와 같은 제한적 재래식 군사공격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파키스탄은 전 방위 억제 개념이 나스르 미사일과 같은 운반수단에 의한 전술핵무기를 통해 재래식 위협을 억제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파키스탄군에 따르면 전술핵무기는 인도의 콜드 스타트 교리(CSD) 및 능동적 작전(PAO)에 대비하여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균형을 달성하는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⁴⁶⁾ 파키스탄은 재래식 전력이 우세한 소련을 상대로 미국이 ‘선제적 핵사용(NFU, No First Use)’을 위협하면서 재래식 군비열세를 상쇄하려고 했던 냉전기 사례를 상기하면서 자신들의 핵전략이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파키스탄은 ‘선제 핵불사용’ 교리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파키스탄이 인도가 먼저 사용하지 않더라도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인도군이 라호르-카라치(lahore-karachi)를 연하는 선을 통과할 경우 파키스탄은 재래식분쟁을 핵전쟁으로 확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⁴⁷⁾

파키스탄은 자신의 핵전략이 전 방위억제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재래식 전력으로 우월한 인도의 지속적인 위협 하에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다. 결국 우세한 적을 상대로 대응하는 파키스탄의 핵전략은 ‘계산된 모호성(calculated ambiguity)’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파키스탄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 방위억제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재래식 능력의 개선과 더불어 위협을 관리 및 대응할 수 있는 재래식 작전개념이 추가되어야 한다.⁴⁸⁾

46) “What is Pakistan’s Full Spectrum Deterrence doctrine? Discussion in ‘Pakistan Strategic Forces’ started by Pksecurity, Sep 10, 2015,” <https://defence.pk/pdf/threads/what-is-pakistans-full-spectrum-deterrence-doctrine.396951/>

47) Francisco Aguilar(eds.), *An Introduction To Pakistan’s Military*, p.36.

48) “Pakistan’s evolving nuclear doctrine: Discussion in ‘Pakistan Strategic Forces’ started by Devil Soul, Jan 9, 2018.”

라. 재래식 전략: ‘신 전투수행 개념(New Concept of War Fighting, NCWF)’

파키스탄은 인도의 콜드 스타트 전략에 대응하여 전술핵무기의 도입과 동시에 ‘신 전투수행 개념(NCWF, new concept of war fighting)’이라는 재래식 군사전략을 채택하였다. 새로운 군사전략은 재래식 위협에 대응하여 부대의 동원시간을 단축하는데 주안을 두었다. 파키스탄 입장에서 인도의 콜드 스타트 전략은 국제적 압박이 인도에 몰아닥치기 전에, 그리고 파키스탄군이 대응하기 이전에 신속하고 기대치 않는 재래식 공격을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시나리오 때문에 파키스탄군은 새로운 전략개념 하에서 인도보다 신속한 시간 내에 동원할 수 있는 개념을 발전시켰다.⁴⁹⁾

2013년 공식화된 파키스탄의 ‘신 전투수행 개념(NCWF)’은 장기간에 걸친 역사적, 경험적 고민을 거친 산물이다. 파키스탄은 1989년 군사연습때 이미 인도의 군사작전에 대응하여 공격-방어 전략을 채택하여 신뢰성 있는 대응력을 적용한 경험을 착안하여 신 전투수행개념을 발전시켰다. 2004-2007년 카슈미르 분쟁을 둘러싸고 협상이 진행되던 국면에서 인도가 2004년 독일의 전격전(blitzkrieg)에 기원을 둔 콜드 스타트 교리를 발표하자 파키스탄 육군총장 카야니는 2007년 아즈메나우(Azm-e-Nau) 합동훈련을 개시하였다. 카야니는 “우리는 적의 의도가 아니라 능력에 기초하여 계획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군사전략의 탄생을 예고하였다. 2009-2013 파키스탄군이 실시한 아즈메나우 훈련은 공지 합동성 강화에 초점을 두면서 동원과 기동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통합 협조체계를 완성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아즈메나우 군사훈련을 통해 파키스탄은 인도와 유사하게 독일 구데리안의 전격전 개념을 모체로 하여 합동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독립사단’ 개념을 발전시켰다. 이와 별개

<https://defence.pk/pdf/threads/pakistans-evolving-nuclear-doctrine.538102/>
 49) <https://defence.pk/pdf/threads/pakistan-army-to-preempt-indias-cold-start-doctrine.258666/>

로 파키스탄 공군은 제2차 세계대전시 독일공군의 기능과 유사하게 지상군을 근접 지원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2013년 군사훈련이 완료되자 파키스탄군은 신 전투수행개념이라는 교리를 공식화하였다.

신 전투수행 개념의 핵심은 동원시간 단축과 육군-공군간 합동성 강화에 있다. 이를 위해 파키스탄군은 2010년 인도와의 동부접경지역을 연해 있는 남북 편잡, 시알코트, 신드흐 지역에 군 병력 20,000을 동원하여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였다. 5년 주기로 개최되는 파키스탄의 하이마크(High Mark) 연습은 남부 아랍 해에 연한 북부지역의 광대한 스카르두(Skardu)에서 지상군의 기동과 공군의 협조된 군사행동을 점검하는데 주안을 두었다. 신전투수행 개념의 시행으로 파키스탄은 인도보다 더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연계해서 파키스탄군은 인도와의 영토분쟁에서 ‘리포스트(riposte)’ 개념을 발전시켰다. 리포스트는 인도와의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기위한 ‘스트라이크 군단’을 일컫는 개념으로서 기타 군단들이 인도의 최초공격을 견제 고착하는 동안 인도의 영토 깊숙이 침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⁵⁰⁾ 인도의 수적 우세에 대한 이러한 대담한 행동은 최초단계의 공격 모멘텀, 그리고 효과적으로 적을 자신의 영토내로 진격하는 것을 정지시키고 수 주 내에 휴전을 강요함으로써 국제사회가 파키스탄의 노력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수행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 하에서 파키스탄은 획득한 영토를 인도의 양보와 맞교환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50) Aguilar, *An Introduction To Pakistan's Military*, p.10.

4. 파키스탄의 군사력 건설

가. 핵능력 고도화: ‘전 방위억제 전략’의 구현

전 방위억제 개념은 인도와 대응한 핵능력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억제능력에서의 격차가 없도록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콜드 스타트 전략에 대비하기 위해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2015년 파키스탄 외무장관은 최소신뢰억제에서 전방위로 핵전략을 전환했다고 하면서 파키스탄은 실존적 위협에 직면한 이후에야 비로소 핵무기를 사용하던 수세적 개념에서 벗어나 보다 공세적으로 핵을 사용할 것임을 천명하였다.⁵¹⁾ 파키스탄의 핵전략은 인도와의 재래식 군비경쟁의 열세를 상쇄하고, 은밀한 사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도의 공격을 억제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파키스탄은 ‘전 방위억제’ 핵전략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핵능력을 수직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파키스탄의 핵무기는 95-110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핵사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저 위력의 전술핵무기 개발과 실전배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선제 핵불사용(NFU, No First Use)’ 정책을 거부하면서 억제력을 높이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군 지휘부는 “파키스탄은 인도의 공격에 대해 최단시간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주변에 핵시설을 건설하였다. 저강도 핵무기의 사용은 인도의 선제공격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⁵²⁾ 파키스탄은 단거리 미사일로서 인도의 재래식 타격을 억제하려하며 인도의 공격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핵무기를 여러 장소에 분산 배치하였다. 또한 파키스탄의 취약한 지휘통제체계에 대한 인도의 공격 가능성은 파키스탄으로 하여금 핵사용 권한을 분권화하여 기습적인

51) ISAS, “Pakistan’s Nuclear Deterrence: From Credible Minimum to Full Spectrum,” *ISAS Insights* (NUS: ISAS, 2015).

52) Calvo, “Pakistan’s Military Modernization,” p.9.

1격에 대비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군사적 상황이 불확실해질 경우 우발적인 확전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파키스탄은 전술핵무기를 실전배치한 것으로 보이지만 신뢰성 있는 저 위력 핵탄두를 제조할 능력이 확보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파키스탄은 핵 투발수단으로서 지대지 미사일, 공군폭격기, 그리고 해상기반 투발수단 등 3원 체계(nuclear triad)를 추구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은 지대지미사일과 공군폭격기이다. 첫째, 파키스탄은 투발수단으로서 사거리 60km에 달하는 단거리 미사일 나스르(Nasr)를 개발하였으며, 이것은 고체연료가 주입된 추진체로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인 무기이다. 파키스탄은 나스르 미사일이 인도의 콜드 스타트 전략에 대응한 최적화된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파키스탄은 전술핵무기 강화를 통해 인도의 기계화 부대의 침투를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인도의 정치지도부로 하여금 재래식 선제 공격을 어렵게 만들도록 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물론 파키스탄과 인도가 대가치 표적에서 대군사 표적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안정성이 훼손되고 핵전쟁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둘째, 공중 핵 투발수단으로서 F-16 A/B은 파키스탄 핵억제력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병행해서 순항미사일개발도 국산화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국방과학연구단지가 자체 개발한 사거리 750km의 지상발사 순항미사일 바부르(Babur)는 450-500kg의 핵탄두를 운반할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2015년 공군은 인도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스텔스 기능을 가진 공대지 미사일 라드(Raad) 또는 하트프(Hatf-8)를 개발하였다. 라드는 450kg의 고폭탄두 및 10-35KT의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군이 이것을 F-16에 장착할 수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나, 앞으로는 중국제 전투기 JF-17을 순항미사일 탑재 플랫폼으로 사용하려 할 수 있다.

셋째, 파키스탄은 전술핵무기 증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해상기반의 억제력 제고에도 노력을 쏟고 있다. 다만, 악화된 경제상황 때문에 해상

기반 투발수단의 현대화가 의도한 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점에서 파키스탄이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잠수함전력화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이 때문에 파키스탄은 중국과의 군사 협력을 전력증강을 위한 최상의 파트너로 인식하면서 접촉을 늘려가고 있다.

앞으로도 파키스탄의 핵무기에 대한 집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재래식 군비경쟁을 상쇄하기 위해서 거의 전적으로 핵무기에 의존하려 할 것이다. 파키스탄은 전술핵무기를 포함하여 핵무기 투자비율을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써 인도와의 재래식 군비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파키스탄은 인도보다 많은 국방비 비율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하고 있는데 인도는 전체국방비의 4%를, 파키스탄은 전체국방비의 10%를 핵무기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생각을 반증한다.⁵³⁾ 더욱이 2008년 뭄바이 테러공격에 대한 인도의 ‘무반응’이 파키스탄으로 하여금 파키스탄의 핵무기가 인도의 대량보복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한 것이라는 믿음을 더욱 굳히게 만드는 오판을 유발했을 수 있다.⁵⁴⁾ 이러한 핵억제력에 대한 믿음은 인도의 전략태세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적어도 파키스탄의 경제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군사력은 재래식 군사력과 핵능력 사이에서 투자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의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파키스탄이 완전한 3원 체계를 추구할 것인지, 전술핵무기를 확장할 것인지,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다.⁵⁵⁾

53) Mason, *Military Budgets in India and Pakistan: Trajectories, Priorities and Risks*, p.32.

54) Paul S. Kapur, “India and Pakistan’s Unstable Peace: Why Nuclear South Asia Is Not Like Cold War Europe,” *International Security*30, No. 2(Fall 2005), p.141.

55) Calvo, “Pakistan’s Military Modernization: An Overview,” p.2.

나. 재래식 전력 건설: '신 전투수행 개념' 구현

파키스탄은 전격전식 전쟁수행 개념인 '신 전투수행 개념(NCWF)' 구현에 필요한 지상군장비와 항공전 전력을 주안을 둔 재래식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이 전략의 목적은 재래식 위협이 발생할 경우 군부대의 동원 시간 개선과 육해공군의 합동전투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인도의 콜드 스타트 전략이 유사시 '72시간 이내'에 재래식 전력으로 기습침투를 개시하는데 목적을 두면서 파키스탄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이전에 그리고 국제적 압력이 인도를 압박하기 이전에 전장의 승리를 달성하는 개념이라면, 파키스탄은 신 전투수행개념이 완성 이후 인도보다 더 신속하게 군을 동원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⁵⁶⁾ SIPRI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2010-2016간 군비지출을 2003-2008년에 비해 58퍼센트 이상 증가시켰다.⁵⁷⁾ 주요 도입장비는 전투기, 기계화 부대 장비, 미사일 등으로써 이것은 대반란전과 대테러전 수행에 대비한 장비라기보다 전통적인 재래식 전쟁을 수행하는 무기들로 평가된다. 특히, 기계화장비에 대한 군사비지출이 76퍼센트 증가되었으며 항공기와 미사일은 각각 114퍼센트와 127퍼센트로 증가되었다.⁵⁸⁾

파키스탄은 신전투수행 개념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전력이 지상군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것은 인도의 국경분쟁에서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제한전 수행전력을 보강하는데 주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파키스탄의 육군이 파키스탄군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신 전투수행개념의 핵심적인 방어 및 공격수행 전력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9개 지상군 군단이 있는데, 이중에서 6개 군단은 인도와의 재

56) <https://tribune.com.pk/story/558604/countering-cold-start-military-to-adopt-new-war-concept/>

57) SIPRI,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2016," <http://www.sipri.org/databases/milex>

58) <https://thediplomat.com/2017/03/pakistans-non-nuclear-plan-to-counter-cold-start/>

래식 전쟁수행을 위해서 인도국경 인근에 배치되어 있다. 1군단과 2군단은 기계화 ‘스트라이크’ 전력으로서 인도의 영토 깊숙이 침투하여 ‘리포스트’ 독트린의 일부로 분쟁을 수행한다. 11군단과 12군단은 발루치스탄과 키버 팩툼크와 지역의 대반란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기타 군단들은 잠재적인 인도의 공격에 대비하여 배치되어 있다.⁵⁹⁾ 파키스탄 육군은 기계화 부대의 탱크와 장갑차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코브라 공격헬기와 정찰용 무인정찰차량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 대반란 작전에도 대비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합동전투를 수행하기 위한 공군력 강화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인도의 전력과 비교할 때 파키스탄의 주된 취약성은 공군력의 열세에 있다. 인도와의 공중 전력에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파키스탄군은 우선적으로 공군전력을 지상군에 대한 근접지원 하는 용도로 운용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공군력 건설에서 가장 논쟁이 되었던 것은 F-16 Falcon을 도입하는 문제였다. 1990년 이후 파키스탄-미국간 F-16도입이 뜨거운 논란이 되었는데, 계획된 도입계획이 핵개발로 인해 무산되다가 2001년 이후 제재완화와 양국관계 협력이 증가함에 따라 인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에 도입되었다. 이 전투기는 전술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도록 개조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인도가 심각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공군은 47대의 F-16을 보유하고 있으며, 프랑스제 미라주와 JF-17과 같은 중국제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도 파키스탄 공군은 전자전을 수행하고 지휘부에 전장상황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고도화된 전자전 능력, 공중정보통제체계(AWACS)를 도입하였다. 핵탄두이외에도 재래식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다중 플랫폼을 가진 라드 및 바부르(Raad and Babur) 순항미사일은 신작전수행개념에 있어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파키스탄 해군은 인도와의 긴 국경선을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59) Aguilar, *An Introduction To Pakistan's Military*, p.30.

여건으로 인해 최초 분쟁 단계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해군이 전력기획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나 장기전에서 파키스탄의 해상교통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인도와 해군 분쟁은 비대칭적인 분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작전적 수준의 항공모함도 보유하고 있다. 파키스탄 해군은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전술에 의존할 것이다. 따라서 해군은 잠수함과 고속미사일함정과 함께 대함순항미사일 하르바(Harba)를 개발하고 이것으로 신 전투수행개념을 구현하는데 있어 인도 해공군을 저지하면서 해군의 독립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을 두었다.⁶⁰⁾ 파키스탄 해군은 인도가 해상기반의 핵전력을 개발하여 인도-파키스탄간의 핵 균형을 깰 수 있는 ‘2격 능력’을 보유할까봐 우려하고 있다.⁶¹⁾

파키스탄의 재래식 전력 증강 추이를 분석해 볼 때 1998년 핵무장 이후 파키스탄은 재래식 군사력에 증강된 자원을 투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핵무장이 이루어졌던 1998년 직후의 일정기간 동안의 국방비 추이를 보면 국방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1983년부터 1998년 까지는 국방비가 평균 5.52퍼센트 증가하다가 1999년부터 2013년까지는 매년 약 3.98퍼센트 증가하였다.⁶²⁾ 그러나, 핵무장 이후 변화 추세를 년 단위로 살펴보면 1999년에 시작하는 국방비 추세는 정반대의 해석이 가능하다. 핵무장 이후에 감축된 국방비를 만회하려는 노력이 년 단위의 높은 증가율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으로 볼 때 파키스탄은 핵무장 초기에는 핵무기를 통해 핵대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면서 재래식 군비감축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그러한 의도가 제대로 먹

60) <https://dailytimes.com.pk/207360/pakistans-new-war-strategy/>

61) Raja Rab Nawaz, “Maritime Strategy in Pakistan,”

<http://www.dtic.mil/cgi-bin/GetTRDoc?AD=ADA429850&Location=U2&doc=GetTRDoc.pdf>

62) Butt, “Do Nuclear Weapons affect the Guns-Butter Trade-off?,” p.235.

혀들지 않았음을 자각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파키스탄이 신전투수행 개념을 수행하기 위해 재래식 전력을 증가하고 있는 추이는 무기체계 개발과 획득 과정에서 잘 나타난다. 파키스탄은 인도와의 영토분쟁에 대비하여 핵무장 이후에도 전력규모를 10퍼센트 가까이 증가시켰으며 인도를 겨냥한 무기체계와 장비를 증강하였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키스탄은 장갑차를 15퍼센트 증가하고, 지대공 미사일은 251퍼센트, 그리고 대전차무기는 1,300퍼센트 증가시켰다. 파키스탄의 전투서열의 변화에서도 유사한 증가세를 읽을 수 있다. 파키스탄은 9개 군단, 6개 기계화 사단, 18개 보병사단, 그리고 3개 포병사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7개 군단은 인도를 겨냥한 것이다. 파키스탄의 주력군은 동부전선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배치는 핵무장 이후에도 변화하지 않고 있다. 파키스탄은 핵무장 전후에 관계없이 국방비, 무기획득추세, 그리고 군사력 배치 면에서 보더라도 인도와의 분쟁을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핵무기로 인한 재래식 전력에 대한 대체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신전투수행 개념을 위해 지상군 전력 구축에 중점적인 노력을 쏟고 있다고 평가된다.

〈표 2〉 파키스탄의 무기체계 획득 현황⁶³⁾

장비유형	1997	2012	증감 비율(퍼센트)
병력	587,000	642,000	9.4
주력 전차	2,120	2,411	13.7
보병수송용 장갑차	850	1,320	55.3
견인포	1,590	1,659	4.3
자주포	240	510	11.3
다련장	45	88	95.6
박격포	725	2,350	224
지대공미사일	850	2,990	251
지대지미사일	18	180	900
대전차유도탄	800	11,100	1,288
대공포	2,000	1,934	-3.3

63) Butt, "Do Nuclear Weapons affect the Guns-Butter Trade-off?," p.236.

다. 전력건설의 딜레마

파키스탄은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간의 자원할당에 있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위협으로 간주하는 인도는 상대적으로 자원의 이점을 가지고 있어 재래식 군비경쟁에서 파키스탄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무기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후속되지 않는다면 파키스탄 군사전략에서 핵의 역할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파키스탄은 전술핵무기와 단거리 핵 투발 수단개발에 더욱 매진하고, 해상기반 핵무기와 순항미사일을 증가하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파키스탄의 핵전략은 고도의 모호성에 의존하고 핵사용 태세를 높이고 확전의 위협을 증가하는데 주안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파키스탄은 군사력 건설에서 지속적으로 딜레마에 직면할 것으로 평가된다. 냉전기 아이젠하워와 흐루시초프는 핵전력 의존도를 높이고 재래식전력 감축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핵무기는 ‘적절한 규모로 무장된 재래식 능력(properly sized and equipped conventional capabilities)’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⁶⁴⁾ 동일한 이유로 해서 파키스탄은 핵무장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전력을 감축하지 못하면서, 한편으로는 점점 악화되는 재정여건 상황 때문에 핵전력에 비중 있는 투자를 지속해나가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그러나 파키스탄의 핵전력에 대한 의존은 안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재래식 전력을 감축하는 것도 그다지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데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인도와의 군사적 우발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재래식 능력을 감축하는 것은 전력약화를 유발하고 전력약화는 또 다시 핵무기의 ‘1차 사용(first use)’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 규모와 군사력 규모에서 우세한 인도와의 제한전쟁에서 핵무기의 1차 사용은 파키스탄에게 유리하게

64) Mason, *Military Budgets in India and Pakistan: Trajectories, Priorities and Risks*, p.37.

작동하지 않는다. 이러한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간의 선택의 딜레마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시간이 지속될수록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래식 전력 약화를 감수하면서 단거리 핵 타격능력에 대한 높은 의존을 해야 하는 파키스탄의 딜레마는 미국의 군사지원 의존도를 높일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지원에 소극적일수록 파키스탄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지원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체제 내부의 위협은 군사력 건설의 딜레마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파키스탄은 다양한 체제내부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재래식 전력이 여전히 중요한 대응능력으로 기능해야 한다. 그러나 파키스탄의 현존 재래식 전력은 대반란전 수행에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다. 파키스탄은 연방직할 부족지역에서의 분쟁에서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군사 교육, 장비, 무기체계 등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연방자치 지역과 스와트 계곡(Swat valley)에 투입된 부대들은 전면전 수행전략에서 소규모 작전으로 전환하는데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다. 2008년부터 대반란전 수행 상황이 다소 개선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직할 부족지역 지역은 여전히 큰 난관에 처해 있다. 효과적인 거버넌스가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기 이전까지 파키스탄군과 반란군간의 교착상태는 지속될 것이며 이 때문에 대규모 재래식 전력 유지가 불가피할 것이다. 결국,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파키스탄은 핵무기가 재래식 전력의 '대체재'로 유용하지 않다는 사실을 깊이 절감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평가와 함의

본 논문은 핵무장국가들의 재래식 건설을 '전략기반의 전략기획 절차'

를 중심으로 파키스탄의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핵무장상 황하 군사전략’의 양 축인 ‘전 방위 핵억제전략’과 ‘신 전투수행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파키스탄이 추진하는 재래식 건설 추세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핵능력을 보유한 국가들이 재래식 전력 건설의 부담은 줄면서도 핵개발 이전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안보능력을 누리게 되는 상황으로 정의되는 소위 ‘핵 대체효과’는 파키스탄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지 않았다. 1998년 파키스탄이 핵무장국이 된 이후 핵무장이 재래식 전력 건설과 교리 및 태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는 아직까지 더 체계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현재까지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파키스탄의 핵무장이 핵대체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은 수정주의적 전략 목표를 추구하는데 있으며, 이에 기반을 두어 카르길 전쟁 이후 인도의 새로운 군사전략에 대응하려는 파키스탄의 공세적인 전략개념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 인해 재래식 전력에서의 지속적인 증강과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파키스탄이 당면한 경제악화와 자원제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인도와 지속적인 재래식 군비경쟁이 상대적 강국인 인도를 대상으로 최적의 효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인도와의 지속적인 군비경쟁은 파멸로 결판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핵무장국의 전력기획절차는 정형화되고 고정된 형태를 식별하기는 어려우나 전반적으로 ‘전략기반의 전력기획 절차’에 따라 전력건설이 이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핵무장국가들의 전력기획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핵무기’가 전체 군사력 건설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핵-재래식 전력의 조합 형태는 핵무장국가가 당면한 안보위협 형태와 자원제한의 변수에 따라 조합형태가 달라지며 그에 따라 핵무기-재래식 전력의 비중과 역할배분이 달라진다. 결국, 핵무장국마다 고유한 핵전략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나 ‘핵 무장하 재래식 전쟁수행’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적 고민의 대상이 될 것이

며 여기에 기반을 두어 재래식 전력건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전략기반의 전력건설이 이상적인 형태이긴 하나 현실적으로는 ‘자원제한’ 변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직면한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면서 ‘핵-재래식 전력조합의 황금비율’을 찾는 과정에서 핵무장국은 지속적으로 재원확보의 딜레마 속에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핵무장국은 ‘국가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적의 안보능력을 구비하기 위해서 결국은 ‘핵능력’과 ‘재래식 전력’의 조합이 최상의 군사적 효율성을 창출해야 하는 점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합목적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전략기반의 전력건설’이 경제논리 중심으로 변질되어 군사적으로는 정작 최상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우려가 생겨날 수도 있다. 파키스탄도 결국은 자원제한이라는 제약 속에서 핵과 재래식 전력의 적절한 배합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은 ‘전략’을 우선시하면서 “싸우는 방법대로 전력을 건설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자원이 부족한 국가일수록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싸우는 방법, 즉 ‘전략’을 철저히 구상한 이후에 군사력을 건설하는 접근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전략기반의 논리가 경제기반의 논리로 변질되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치군사 리더십의 의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핵 무력 완성’을 선포한 핵무장국인 북한의 재래식 전력 건설 추이를 분석하고 전망하는데도 적지 않은 함의가 있다. 북한도 파키스탄과 유사하게 한국과의 체제경쟁의 열세 속에 대칭적인 재래식 군비 경쟁을 동등하게 추구해나갈 경우 국가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자원 제한’에 대한 위기인식에서 핵개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그러한 야심찬 포부는 핵대체 효과가 기대했던 만큼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래식 전력 건설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딜레마로

귀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핵무장국이 핵대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영토의 현상유지에 만족하면서 우선적인 안보목표를 핵위협으로 억제될 수 있는 위협에 초점을 두는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이론적, 경험적 연구결과는 북한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 중에서 북한이 의지만 있다면 변화시킬 수 있는 영역, 즉 ‘현상변경’의 전략목표를 포기한다면 핵대체 효과의 문턱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북한이 ‘한반도 적화’라는 전통적으로 추구해오던 수정주의적 군사전략 목표를 고수하는 한 핵대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설사 현상유지에 만족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핵능력이 다양한 수준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다종화 및 고도화 되지 않으면 그 또한 핵대체의 이익을 누리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논리적으로 볼 때 북한이 재래식 군비에 막대한 자원을 투사할 경우 자원부족이 예상되므로 핵문턱을 낮추기 위해 핵의 기술적 고도화에 보다 주안을 두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핵고도화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확산 레짐과 충돌하여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면 핵고도화에 집중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결국,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남북한 간 군비경쟁 속에서 자원소모의 악순환에 빠져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핵대체 효과를 둘러싼 군비건설과 자원소모 간의 악순환 관계는 북한의 최근 안보전략 노선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이 최근 들어 비핵화 협상에 응하고 있다고 해서 북한 군사력 건설을 둘러싼 근본적인 전략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북한은 향후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서 ‘비핵화 수준’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에 따라서 자신의 재래식 전력 건설방향을 조절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경우가 되었건 북한은 재래식 전력건설을 함에 있어 당면한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핵과 재래식 전력의 조합을 어떻게 해 나갈지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핵-재래식 전력간의 황금비율을

찾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도 여전히 군비경쟁에서 초래되는 비용은 북한정권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파키스탄이 ‘자원 제한’의 변수 때문에 인도와의 군비경쟁에서의 비대칭적인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었듯이 북한도 무한 군비경쟁의 방식은 최대한 회피한 가운데 안보능력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 입장에서 전략적 유용성이 크지 않은 전력들에 대해서는 군비통제 협상을 통해 군비경쟁 비용을 줄여나가려고 할 것이며, 전략적 유용성이 큰 전력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증강해나가려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후속 연구는 본 사례연구에서 검증한 ‘전략기반의 전력건설 절차’를 활용하여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따른 군사전략과 전력건설 방향을 분석하는 작업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긴 하였지만 앞으로의 협상과정은 지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의 끝은 선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장기간 진행될 비핵화 협상 과정 그자체가 ‘핵 있는 평화공존’의 형태로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은 실험적으로 자신의 군사전략변화와 더불어 전력건설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체제로 이어지는 것이 한국으로서는 최상의 안보목표가 되어야겠지만, 한국이 원하지 않는 우발적인 경로에 대해서도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불확실한’ 여정 속에 어떤 또 다른 ‘북한식 군사개혁’을 꿈꾸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원고투고일 : 2018. 7. 8, 심사수정일 : 2018. 8. 16, 게재확정일 : 2018. 8. 16)

주제어 : 군사전략, 전력기획, 핵전략, 재래식 전략, 파키스탄, 핵대체효과, 핵-재래식 전략 상호작용, 콜드 스타트 독트린(CSD), 전방위 억제(FSD), 신전투수행개념(NCWF), 북한의 딜레마

<참 고 문 헌>

- 김태현, “북한의 공세적 군사전략: 지속과 변화,” 『국방정책연구』 제33권 제1호 (2017년 봄): 131-170, <http://uci.or.kr/G704-001646.2017.33.1.005>
- 김태현, “북한의 핵전략,” 『국가전략』 제22권3호(성남: 세종연구소, 2016); 5-36, <http://uci.or.kr/G704-000434.2016.22.3.007>
- 손한별, “핵보유국에 대한 전략적 강압: 1999년 카르길 전쟁,” 『국가전략』 제23권 4호(2017).
『노동신문』 (2013. 3. 31).
- Ahsan Butt, “Do Nuclear Weapons Affect the Guns-Butter Trade-off? Evidence on Nuclear Substitution from Pakistan and Beyond,” *Conflict, Security & Development* 15, No. 3(2015).
- Alex Calvo, “Pakistan’s Military Modernization: An Overview,” *The Eurasian Studies society of Great Britain and Europe Journal: An Open Access Working Paper*, Vol. 5. No. 1. (March 2016).
- Amit Gupta, “Determining India’s Force Structure and Military Doctrine,” *Asian Survey* 35(5)(1995).
- Beenish Altaf, “Pakistan’s Policy of Full Spectrum Deterrence,” in: <http://foreignpolicynews.org/2017/12/15/pakistans-policy-full-spectrum-deterrence>
- Charles Glaser, *Ration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0).
- Christopher Bolkcom, Shriley A. Kan, and Amy F. Woolf, *US Conventional Forces and Nuclear Deterrence: A China Case Study* (Washington D. 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06).
- David P. Barash, “Nuclear Deterrence is a Myth,” i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jan/14/nuclear-deterrence-myth-lethal-david-barash>
- Efraim Inbar and Shmuel Sandler, “Israel’s Deterrence Strategy Revisited,” *Security Studies* 3(2) (1993).

- Francisco Aguilar(eds.), *An Introduction To Pakistan's Military* (Harvard Kennedy School: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p. 2011).
- George Perkovich, *India's Nuclear Bomb: The Impact on Global Prolifer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 Henry C. Bartlett and G. Paul Holman, Jr., "Strategy as A Guide to Force Planning," *Naval War College Review* (Autumn 1988).
- ISAS, "Pakistan's Nuclear Deterrence: From Credible Minimum to Full Spectrum," *ISAS Insights* (NUS: ISAS, 2015).
- Lt Gen. V. K. Sood and Pravin Sawhney, "Operation Parakram: The War Unfinished," *Sage* (2003).
- Manpreet Sethi, "Conventional War in the Presence of Nuclear Weapons," *Strategic Analysis*, Vol. 33, No. 3 (2009).
- Michael S. Gerson, "Conventional Deterrence in the Second Nuclear Age," *Parameters* (Autumn 2009).
- Manpreet Sethi, "Conventional War in the Presence of Nuclear Weapons," *Strategic Analysis*, Vol. 33, No. 3 (2009).
- Paul S. Kapur, "India and Pakistan's Unstable Peace: Why Nuclear South Asia Is Not Like Cold War Europe," *International Security* 30, No. 2(Fall 2005).
- Pervez Musharraf, *In the Line of Fire* (New York: Simon & Schuster, 2006).
- Richard L. Kugler, "Nonstandard Contingencies for Defense Planning," in: Paul and David, *New Challenge for Defence Planning: Rethinking How Much is Enough* (Santa Monica: RAND, 1994).
- Richmond M. Lolyd and Dino A Lorenzini, "A Framework for Chosing Forces," Richmond M. Lloyd, *Foundation of Force Planning: Concept and Issues* (Newport. R. I: Naval War College Press, 1991)
- Rodney W. Jones, "Minimum Nuclear Deterrence Posture in South Asia," in: http://www.dtra.mil/about/organization/south_asia.pdf
- Rodney W. Jones, "Strategic Stability and Conventional Force Imbalance:

- Case of South Asia,” *SASSU Research Paper* No.1 (2005).
- Shane Mason, *Military Budgets in India and Pakistan: Trajectories, Priorities and Risks* (Washington D. C.: Stimson Center, 2016).
- Shai Feldman, *Israeli Nuclear Deterrence: A Strategy for the 1980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2).
- SIPRI,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2016,
<http://www.sipri.org/databases/milex>
- Stephen J.Cimbala, “On Nuclear War: Deterrence, Escalation, and Control,” in: *Military and Strategic Affairs*, Volume 4, No.3.(2012)
- Subhash Kapila, “India’s New Cold Start War Doctrine strategically reviewed,” *Delhi: South Asia Analysis Group*, Paper No. 99104 (May 5, 2004).
- Shaukat Qadir, “Cold Start: The Nuclear Side,” *Lahore: The Daily Times* (May 17, 2004).
- Todd S. Sechser and Matthew Fuhmann, *Nuclear Weapons and Coercive Diplom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 Walter Ladwig III, “A Cold Start for Hot Wars? The Indian Army’s New Limited War Doctrine,” *International Security* 32(3)(2007).
- “Full spectrum deterrence : Discussion in 'Strategic & Foreign Affairs' started by ashok321, Dec 15, 2017.”
<https://defence.pk/pdf/threads/full-spectrum-deterrence.533525/>
- “What is Pakistan’s Full Spectrum Deterrence doctrine? Discussion in ‘Pakistan Strategic Forces’ started by Pksecurity, Sep 10, 2015,”
<https://defence.pk/pdf/threads/what-is-pakistans-full-spectrum-deterrence-doctrine.396951/>
- “What is Pakistan’s Full Spectrum Deterrence doctrine? Discussion in ‘Pakistan Strategic Forces’ started by Pksecurity, Sep 10, 2015,”
<https://defence.pk/pdf/threads/what-is-pakistans-full-spectrum-deterrence-doctrine.396951/>

“Pakistan’s evolving nuclear doctrine: Discussion in ‘Pakistan Strategic Forces’ started by Devil Soul, Jan 9, 2018.”

<https://defence.pk/pdf/threads/pakistans-evolving-nuclear-doctrine.538102/>

<https://defence.pk/pdf/threads/pakistan-army-to-preempt-indias-cold-start-doctrine.258666/>

<https://tribune.com.pk/story/558604/countering-cold-start-military-to-adopt-new-war-concept/>

<https://thediplomat.com/2017/03/pakistans-non-nuclear-plan-to-counter-cold-start/>

<https://dailytimes.com.pk/207360/pakistans-new-war-strategy/>

Raja Rab Nawaz, “Maritime Strategy in Pakistan,”

<http://www.dtic.mil/cgi-bin/GetTRDoc?AD=ADA429850&Location=U2&doc=GetTRDoc.pdf>

<Abstract>

Nuclear Armed State's Military Strategy and Force Planning: Pakistan and its implication to North Korea

Kim, Tae-hyu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how to develop a military strategy and build military forces especially focusing on the conventional forces of nuclear armed states as a comparative case study of Pakistan, based upon a force planning framework of strategy driven model. This paper will examine a trend of conventional forces after and before possessing nuclear weapons and clarify how to build conventional forces in rivalry with Indian border threats. I have two arguments in this study. Firstly, this article argues that Pakistan does not reduce conventional forces even after developing nuclear weapons which has only a limited security effectiveness. This causes a little nuclear substitution effect. Secondly, Pakistan is developing its own military strategy based on a 'nuclear-conventional interplay', which priority mostly lies in building a strong land forces. This aims to address a possible surprise attack from India conceptualized as a Cold-Start Doctrine. This military strategy deals with a limited conventional attack in the nuclear shadow to penetrate Pakistan's territory by cutting a military mobilization time and elevating a military readiness. To address an Indian blitzkrieg-like CSD, Pakistan has developed a Full-Spectrum Deterrence nuclear strategy on the one hand, and a New Concept for Warfighting conventional strategy on the other hand. Accordingly, Pakistan is increasing tactical nuclear weapons including low-yield nuclear weapons and delivery systems, and

modernizing joint operation capabilities in order to implement its military strategy. After all, this paper will argue that a strategy-driven force planning model is to be estimated an useful tool to explain nuclear armed states' force planning and conventional forces in the shadow of nuclear weapons still key factor to deter and address multiple external threats. In Conclusion, this paper provided some implications for north Korean military development.

Key Words : strategy-driven force planning model, military strategy, force planning, conventional forces, pakistan, nuclear substitution, nuclear and conventional interplay, Full Spectrum Deterrence, New Concept for Warfighting, Cold Start Doctrine, North Korea's Dilemma

